

질서를 뒤흔들고 정의를 구현하며: 니비디타 메논의 글: 글로벌 남부의 페미니스트 정의 성찰 에 대한 응답

먼저 방금 들은 발표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발표는 정의를 정적인 목적지가 아닌 역동적이고 파괴적인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 풍부하고 도전적이며 필수적인 틀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성경과 사회적 현실 모두에 울려 퍼지는 도전적인 메시지로서, 우리가 신성하거나 자연스럽거나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 온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무질서에 대한 초대는 그 자체를 위한 반란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돈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이끌어내는 신성한 패턴인,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질서 정연함과 대칭성에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형태도 없고 공허한 상태에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자체가 인간 질서에 대한 신성한 방해 행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난한 자들 가운데 태어나, 계급과 배제를 바탕으로 번성하던 종교적·정치적 체제를 뒤흔들었다. 따라서 정의를 추구하고 질서를 교란하는 것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요한계시록 21:5) 하나님의 정신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메논 교수가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발언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남성으로서 내가 혜택을 보는 가부장제가 바로 무질서화되어야 할 질서 중 하나라는 그녀의 강력하면서도 도발적인 주장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이것이 나의 출발점이다. 이것이 필요하지만 불편한 출발점임을 고백합니다. 이는 저의 참여를 외부에서 서 있는 동지가 아닌, 저를 특권화하는 구조 자체를 해체하기 위해 내부에서 노력해야 하는 수혜자로 규정합니다. 가부장적 특권을 배워온 것을 잊는 것은 통제와 권리 주장에서 겸손과 협력으로 돌아서는 회개의 행위입니다.

이 기반 위에, 발표에서 깊이 공명하는 두 가지 질서를 강조하고, 우리 공동의 고려를 위해 세 번째 질서를 추가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 이민 정책과 관행의 질서입니다.

발표는 '조국주의적 상상력'을 날카롭게 해체하며, 이주를 본래 자연스러운 인간 흐름으로 재구성했다. 이 흐름은 국가의 자의적인 경계선으로 인해 갑작스럽거나, 어쩌면 더 체계적·의도적으로 '불법'으로 규정된다. 사마다르와 맘다니 같은 사상가들을 따라, 우리는 이주민을 안보 위협이 아닌 국가라는 폭력적이고 배타적인 질서 자체에 대한 살아있는 비판으로 바라보도록 촉구받는다.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적 정치에 대한 요구는 본질적으로 이 국경 체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이동의 권리를 재합법화하며, 노동과 존재에 대한 권리를 출생이라는 우연이 아닌 것에 부여하라는 요구다. 이는 현대적 글로벌 정의 개념에 필수적인 근본적 혼란이다. 비이민 비자 없이 이 나라에 입국할 수 있어 기쁘다. 이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그러나 나는 국가들에 대한 합법적 방문을 위해 수많은 불필요하고 값비싼 비자 요구를 받아왔으며, 심지어 방글라데시에서 내린 항공기로 다시 호송되는 굴욕까지 겪어야 했다. 입국 비자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장에도 불구하고 자메이카인에게는 도착 시 발급 비자만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제

여권은 압수되어 승무원에게 넘겨졌고, 저는 신성한 국경을 침범한 죄인으로 모든 시선을 받으며 부끄럽게도 방금 내렸던 비행기로 다시 탑승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2/3 세계의 처지입니다.

둘째, 한계의 관점을 통해 사회적 범주로서의 능력의 혼란을 강조하고자 한다.

맹인 동료와 시력을 가진 방문객의 이야기는 단순히 관점에 관한 일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근본적인 인식론적 전환이었다. 장애는 선천적 개인적 비극이 아니라 특정 가정된 규범을 위해 구축된 세계가 생산해낸 사회적 관계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프레임은 경계성—확립된 범주들 사이의 중간 상태—을 소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드문 예외가 아니라 인간 조건의 근본적 요소로 위치시킨다.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순간에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는 '외부인'이 되며, 우리를 위해 설계되지 않은 환경에 의해 장애를 지닌 존재가 된다. 그리고 예, 나는 다시 한번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한다. 우리나라의 카리브 기독교 청각장애인 센터를 방문했을 때, 장애로 분류된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저는 제 장애 때문에 그 대화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인식함으로써, 신화적인 동일성이 아닌 다양성과 차이를 위해 설계된 정의의 필요성이 보편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신체와 정신이라는 개념 자체를 뒤흔듭니다.

신학적으로 이 통찰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바울의 몸의 비유를 떠올리게 합니다: "몸의 약해 보이는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정의는 동일성을 의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평* 등을 의미해야 합니다 — 차이를 전체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 제시하고자 하는 세 번째 질서를 살펴보자: 배상이라는 자선-산업 복합체이다.**

여기서 발표의 역사적 관점은 핵심적이다. 우리가 들었듯 "정의는 우리가 역사가처럼 생각하도록 요구하며" "지금 이 폭력의 역사를 지닌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그 역사에 대한 우리의 대응 역시 동등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글로벌 남부의 페미니스트 정의론, 특히 니베디타 메논 같은 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진정한 배상은 **포기(放棄)**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회나 준교회 단체, 시민사회, 정부 파트너 등 기부 기관이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관리하며 통제하는 임무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프로그램을 설계할 뿐만 아니라 그 범위, 언어, 수혜자까지 결정한다.

현재의 개발 및 배상 모델은 종종 바로 그 해결을 표방하는 식민주의적·가부장적 권력 역학을 재생산한다. 이는 글로벌 북부 또는 엘리트 국가 기관을 정의의 자비로운 설계자, 소외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의 소유자로 위치시킨다. 이는 인식론적 폭력의 한 형태다.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예산을 통제하며, 기준을 설정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지역사회가 아닌 기부자에게 책임을 요구한다. 이는 사실상 새로운 문명화 사명(mission civilisatrice)으로, 미리 승인된 관리 가능한 청사진에 따라 무질서를 정리하는 프로그램이다.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정의는 '포기'를 의미하며, 이는 다른 길을 요구한다. 식민주의, 가부장제, 자본주의 질서로부터 역사적으로 이익을 얻어온 자들—국가, 기업, 또는 나 같은 개인—이 권력, 자본, 통제권을 적극적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타인을 위한 더 나은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할 권리 자체를 양도하는 것이다. 토지를 반환하고, 부를 무조건 재분배하며, 결정권을 박탈당한 이들의 손에 직접 넘겨주는 것이다.

TB_응답2

TB_Response_20251018_Cowan_KOREAN

이는 인도주의 및 개발 분야에 있어 궁극적인 '혼란'이다. 이는 빈곤과 불의의 관리자로서의 그들의 존재 이유의 종말을 의미한다. 이는 시행되는 정의가 아닌 구현되는 정의이며, 거래가 아닌 권력 관계의 변혁이다. 이는 기업과 국가가 지배하는 체제보다 자결권과 지역적 통제를 우선시하는, 앞서 언급된 탈성장 및 식량 주권 원칙과 부합한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발표를 고발이자 초대장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안락함에 길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질서'가 억압을 유지할 때 혼란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은혜가 창조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통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발표자는 정의가 매일 조금씩 갉아먹는 무질서라는 비전을 선물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이 갉아먹음은 가시적인 가부장제, 국경, 능력주의 구조뿐만 아니라 너무나 자주 해결책으로 위장하는 구원주의의 교묘한 구조에도 향해야 합니다. 정의로 가는 길은 낡은 질서를 더 잘 관리하는 자들에 의해 포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의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다채롭고 활기차며 자결적인 '외부'들에게 권력을 양도함으로써 그 질서를 적극적이고 용감하게 해체하는 자들에 의해 포장됩니다. 교회가 이 길을 감히 걸어간다면, 우리는 아직도 왕국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먼 곳의 완벽함이 아니라, 자유롭고 용서받은 자들의 끊임없이 드러나는, 경계 없는 교제입니다.

감사합니다.